

소중한 시절을 떠나 오며

글 _ 이동일 · 전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연구원 (현 서울여자대학교 수학과 교수)

연구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던 고등과학원을 떠나 어느덧 새로 부임한 곳에 와서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재작년 봄, 설레는 마음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홍릉에 들어서던 때가 생각납니다. 고등과학원은 대학원 때부터 오고 싶었던 최고의 연구기관이었고, 감사하게도 저의 바람대로 박사학위 취득 후의 첫 직장으로 얻었기에 그해 봄은 더욱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작년 여름까지 지나온 시간, 그리고 두 학기째를 맞는 지금의 시간을 그저 가볍게 떠올려볼까 합니다.

태릉에 와서 바쁜 첫 학기를 마치고 겨우내 잠시 숨을 돌리다가 금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더니 지금 제 주위는 봄기운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맑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새로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릉의 고요한 환경과는 달리 이곳은 낮 시간에 늘 학생들로 북적댁니다. 대학 교정의 규모가 크지 않아 더욱 정겹고 활기찬 느낌이 들고, 푸른 자연과 더불어 숨 쉬고 있는 아늑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연구보다는 학생들과의 재잘담에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부대끼는 가운데서 즐겁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구하고 강의하는 데 있어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더 철없이 헤매던 박사 초년생에게 고등과학원은 편안한 연구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부담도 지우지 않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연구원들과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토의시간이 좋았고, 자주 열리는 유익한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에 적잖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술지를 비롯해 유용한 자료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 덕분에 연구에 부족함이 없었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계산대수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 분야의 기초와 내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초과학 연구소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은 큰 행운이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계산과학부 수리정보팀을 중심으로 함께 동고동락했던 소위 밥그릇 동료들은 저의 연구와 생활에 있어 줄곧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평화로운 생활이 그리워집니다. 지척에 있는 곳이라 언제든 가서 같이 지냈던 연구원들과 가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학기 중에는 수업 등으로 인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박사님들의 원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꽃이 피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수학의 여러 전공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하루 일



서울여대 연구실 앞 삼각숲에서 만나는 조경

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대학 시절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전공 수업시간을 알차고 흥미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선 제 스스로가 공부하는 내용을 좋아하고 열심히 궁구하며, 가르치는 데 있어 정성과 애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이런저런 방향을 할 때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던 수학이란 학문의 아름다움을 강의실에서 펼쳐 보이며 더 큰 의미를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게 지나왔지만 강렬하게 학문적 경험과 자양분을 쌓을 수 있게 해 준 고등과학원이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있는 동안 본인이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라고 하시던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KIAS](#)